

가출 청소년 방치 심각... 불교계 심터 5곳뿐

서울시는 청소년 심터수를 늘리는 계획을 담은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 키우기 3년 계획을 지난 9월 1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5곳뿐인 서울시의 청소년 심터를 2016년까지 7곳으로 늘리고 간접과 통제를 최소화한 24시간 카페형 심터도 신설할 계획이다. 잠시 쉬 수 있는 버스형 심터 17곳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청소년 가출 인구는 22만명,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파악한 수치로 전체 청소년 인구 1천만명 중 약 2% 규모다. 이에 비해 가출 청소년들의 보호 전문기관인 심터 수는 전국 103개(2013년 8월말 기준)에 지나지 않으며 정원은 1천명 정도다.

예방활동, 증장기심터는 청소년들의 학업, 취업 지원을 통해 자립을 도모한다.

시설·인력 부족...심터 운영 '뒤틀'
 남양주 청소년일시심터의 경우 일주일에 다섯차례씩 거리상담활동(아웃리치)을 병행한다. 김선혜 상담원은 "아이들은 자신의 심정을 솔직히 털어놓는 편"이라며 "더 많은 관심을 여러 아이들에게 꾸준히 쏟을 수 없는 환경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재 남양주일시심터심터 직원은 8명에 불과하다. 상담원 3명에 아웃리치 전담 직원 2명, 야간보호 담당 2명에 시설장 1명이 전부다. 아웃리치의 경우는 자원봉사자

불교계 청소년심터 현황

심터명	운영단체(소속사찰)	보호기간	정원	전화번호
남양주일시심터	조계종사회복지재단(남양주 봉선사)	7일	12명	031-591-1319
마야청소년심터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창원 자비사)	3년	7명	055-274-0924
부산시여자단기청소년심터	불국토청소년도량(부산 영주암)	9개월	15명	051-756-0924
부산시여자중장기청소년심터	범어청소년동체(부산 범어사)	3년	10명	051-581-1388
영희네집	충남육권청소년육성개발원(충남 육권암)	9개월	14명	041-548-1326

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거나 번듯하게 홍보할 수 있지 않기에 심터 사업운영주체로 참여하려는 쪽은 드물다. 종교적 사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부산 중장기청소년심터 영희네집을 2007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곳도 범어사가 출연한 재단법인 범어청소년동체다. 범어 관계자는 "시대와 함께 하며 소외된 이들을 위한 것이 종교라고 본다면 노인 이든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대상을 떠나 필요한 자들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 운영 참여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불교 복지가 양적성장 외형에 치중하는 사이 점차 시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쪽에 관심을 소홀히 기울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종교 역할 아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자철은 자부담안고 심터 운영

청소년심터 운영은 지자체 예산 80%, 운영주체에서 20%를 부담해야 한다. 예산은 대개 2억원 안팎이다. 의식주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직원 급여 등을 제외하면 빠듯하다.

한 시설장은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청소년 사업 운영이 예측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어디까지나 복지제공 주체는 국가다. 민간에 위탁을 주는 이유는 전문성과 서비스 질 확보에 있지만 예산·인력부족으로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실에 맞게 심터수를 늘리고 필요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열악하지만 정부쪽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마야청소년심터 소장 중인 스님(창원 자비사 주지)은 "심터를 운영하는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의 개인후원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외부기업 문화지원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후원모델 개발을 위해 고심중"이라고 덧붙였다.

재단법인 불국토청소년도량 유강열 사무국장 역시 "사찰 재정만으로는 운영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외부기업 문화지원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후원모델 개발을 위해 고심중"이라고 덧붙였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ju.com

조계종, 탄자니아 학교명 '보리가람' 으로 2015년 완공 목표로 설계 마무리단계



탄자니아 경제수도 다르살람 데메케군에 들어서게 될 농업 학교의 조감도

아프리카 대륙에 한국불교와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들어설 예정인 탄자니아 학교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한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지난해부터 진행중인 아프리카 탄자니아 학교 건립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9월 1일 밝혔다.

불교계 지원이 미진했던 아프리카에 자비의 손길을 뻗고자 시작된 아프리카 학교건립은 농업 기술을 주요 교과목으로 전교생에게 수업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해 운영될 계획이다.

탄자니아 경제수도 다르살람 데메케군에 자리잡은 학교는 현재 마무리 설계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가 선정되면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하고 2015년 완공할 계획이다. 개교는 2016년으로 잡고있다. 이를 위해 아름다운동행은 지난 1년간 학교 설립을 위한 현지 NGO 법인 신청, 학교설립 허가, 토지 소유권 등록 등 행정 처리에 힘써왔다.

총 4만평의 학교부지에는 12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 6개와 실습공간

인 대규모 원예실습장, 가축실습장도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될 전교생들을 위해 남녀 기숙사 각각 1동씩과 교사 숙소가 지어진다.

학교 이름은 '보리가람'으로 지어졌다. 지난해 경기도 광주 곤지암 '우리절' 주지 동봉 스님이 소유해온 탄자니아 부지 4만평을 기증함에 따라 토지를 소유해온 현지 법인 '보리가람스쿨'에서 이름을 따왔다. 학교의 가르침이 학생들과 탄자니아 사회 전체의 깨달음과 빈곤 퇴치로 이어지길 바라는 소망도 담겼다.

아름다운동행은 탄자니아 지역에 어린이 독서 장려 지원 프로젝트 '토토의 꿈'과 급식 지원 사업 '하피콘', 우물지원을 통한 식수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지역개발사업 또한 병행하고 있다.

아프리카 학교 건립 동참은 벽돌 한 장 1만원, 책갈집 세트 5만원, 땅 한 평 10만원, 식수대 30만원, 컴퓨터 한 대 100만원, 교실 한 동 1,000만원, 법당 건립 5,000만원으로 함께할 수 있다. 문의(02)737-9595 (농협 301-0112-98519-51, 예금주:아름다운동행) 배현진 기자

전신화상에 병원빛만 5천만원

생명나눔 9월 치료비 지원 환자 선정



화상을 입은 왕 씨(사진 왼쪽)와 사고 전 아이 때 모습(사진 오른쪽)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9월 치료비 지원 환자로 왕 모(21세, 화상 흉터 병태 및 섬유종)씨를 선정했다. 왕 씨는 간경화를 앓던 부모님을 대신해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됐다. 농사일을 하다 건초더미에 불이 붙어 전신화상을 입었다. 두피와 눈꺼풀이 녹아내릴 정도로 큰 사고였다. 이 사고로 왕 씨는 한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오른손과 왼손 손가락 두 개도 절단해야 했다.

앞친데 달린척으로 병을 앓던 부모님이 차례로 돌아가시자 왕 씨에게 남은 것은 5

천만원의 병원빛 뿐이었다. 돈을 갚기 위해 일을 하려고 했지만 화상 흉터로 가는 곳마다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게다가 8년 전에 받은 피부이식 상처도 아물지 않아 진물이 나오고 있다. 두피재

건술, 인공진피이식술, 자가피부이식술을 받으면 환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 (후원 계좌 :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배현진 기자

실버키퍼봉사단 발족

성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주목)에서는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의 우울 및 자살예방 활동을 위해 상담기술을 갖춘 '실버키퍼(Silver Keeper)' 노인봉사단을 발족했다.

사회의 무관심 속에 우울증에 걸린 노인들이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버키퍼 봉사단'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로 구성돼 심리·정서 상담 및 자살예방 교육을 받게 된다. 이후 상담가로서 전문성을 함양한 후 실질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 및 노인문제 인식 캠페인, 관련 기관 견학 등 다양한 외부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봉사단 모집은 9월까지며 단원은 20명이다. (02)929-7950 배현진 기자



늘 흥겨운 추석처럼

중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9월 2일 민족최대명절 한가위를 맞이해 세시풍속행사로 '늘 한가위만 같아라!'를 진행했다. 복지관 난타동아리 '우레' 어르신들의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는 민족예술극단 우금치의 마당극 '청아 청아 내말 청아' 공연으로 이어졌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복지관 회원 약 150여명의 어르신들이 한 데 모여 추석 행사를 즐겼다. 정관 스님은 "다함께 흥겨운 분위기를 즐기는 가운데 얼어져 가는 추석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행사 의미를 밝혔다.

배현진 기자

한국불교예술포럼 학인모집

"한국불교예술포럼"에서 아래와 같이 제11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법패 소리과정 (6개월 과정-매주 화요일)**: 사삼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대장,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오후 3시 ~ 4시 사삼구재·천도재·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 **작법·무용과정 (6개월 과정-매주 화요일)**: 나비춤 - 사방요신, 다계작법, 도량계작법
 오후 4시 ~ 5시 30분 바라춤 - 요잡바라, 관음계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강사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작법부 보유자 일초스님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 개강일시 : 2014년 10월 7일 (화요일) 오후 3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접수기간 : 2014년 9월 ~ 2014년 10월 5일 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1부, 주민등록등본 1통, 변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파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 (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부설 한국 불 교 예 술 대 학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997(부평동) 인혜빌딩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동소정사거리 부평6동 우체국 옆)
 전화 : 032)529-6708 /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본 대학 http://www.bumpae.org 삼계종 http://www.samgyeojong.org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 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비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적으로 기록.
- ★ 아주대 오홍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 비취 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흰옥) 가액 ₩60,000원

격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